

Sachiko Kusukawa, *Picturing the Book of Nature: Image, Text, and Argument in Sixteenth-Century Human Anatomy and Medical Botan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331 pp.

조수남†

이 책은 16세기 식물사와 해부학 분야에서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역할과 인식이 변화하면서 해당 분야가 발전해갔던 복잡다단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6세기에 자연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인쇄 문화가 발전하면서 자연사와 해부학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때 이 시기 자연사와 해부학 연구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과학사 학계의 시각에는 자연에 대한 직접 관찰 및 경험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선호와 전통적인 고전의 권위에 기반한 텍스트 중심의 연구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식물사와 해부학 분야의 발전은 별개의 분야로 여겨져 서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사치코 쿠수카와(Sachiko Kusukawa)의 책은 이러한 생각이 선입견에 지나지 않음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16세기 책 인쇄와 삽화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과 이를 둘러싼 당대의 인식 및 상황 등을 다루고 있다. 당시 자연주의적인 삽화를 담은 자연사 서적을 출판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어떤 이들이 이러한 작업에 관여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어질 논의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2부에서는 식물학 분야를 중심으로 당대의 다양한 논쟁을 소개하면서 레온하르트 폭스(Leonhart Fuchs, 1501-1566)의

---

† 서울대학교, sunamcho@gmail.com

『식물의 역사』(*De historia stirpium*, 1542) 출판과 콘라드 게스너(Conrad Gessner, 1516-1565)의 식물사 삽화 제작을 둘러싼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마지막 3부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1564)의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De Humani corporis fabrica*, 1543)를 중심으로 서적 출판과 해부학 삽화를 둘러싼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16세기 자연을 묘사한 삽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2부에서 폭스와 게스너의 식물사 연구를 다루고 3부에 베살리우스의 해부학 연구를 배치한 것은 단지 이들의 저술이 이 시기 이 분야들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작품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쿠수카와에 따르면 16세기에 식물사와 해부학은 지금처럼 분리된 독자적인 분야가 아니었다. 폭스와 베살리우스부터가 각각 식물 연구와 해부 연구만 했던 인물이 아니었다. 해부학자였던 베살리우스는 약초에 관해서 저술하였고, 폭스는 해부학 서적을 집필하는 등 두 사람 모두 두 분야를 넘나들었던 이들이었다.

더욱이 두 사람이 삽화를 발전시켜 갔던 배경에는 16세기 내과의들을 둘러싼 의학 분야 내의 논쟁이 있었다. 가령, 고전 약초학의 지식을 복원하려했던 폭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기대어 약초의 형태상의 특징들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내과의 세바스티앵 드 몽퇴(*Sébastien de Monteux*, 1518-1559)와 논쟁하면서 그림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베살리우스는 16세기에 피에르 브리소(*Pierre Brissot*, 1478-c. 1525)에 의해 촉발된 방혈 논쟁에 참여하면서 논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하였다. 16세기에 식물사와 해부학은 넓게 볼 때 의학 분야라는 큰 틀 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했던 관련 분야였다.

그런데 폭스와 베살리우스가 의학 논쟁 과정에서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해서 당대 사회에서 시각적 이미지의 유용성이 곧바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쿠수카와는 16세기 자연사 및 해부학 분야에서 실제 자연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았으며, 삽화 사용에 대한 16세기 학자들의 태도 역시 다양했다고 이야기한다. 가령, 그림 사용에 비판적이었던 야누스 코나리우스(*Janus Cornarius*, 1500-1558)는 실제로 특정 식물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해당 식물의 그림을 본다고 해서 유용한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살아 있는 식물을 본 뒤 그림을 보면 곧바로 그 식물을 인식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본 적 없는 식물의 경우 그것을 묘사한 그림만 보아서는 그 그림이 어떤 식물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파

악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고대 그리스의 식물 연구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그림을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의 개별 식물을 “모방”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고대의 원전에서 언급하는 텍스트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갈레노스(Claudius Galenus, 129-c.216)나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 23-79), 그리고 디오스코리데스(Pedanius Dioscorides) 같은 고대 학자들의 우려에서 기원하는 것이었다. 색을 사용하는 문제나 효율적인 삽화를 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책 속에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고대 학자들의 우려나 비판을 감식시킬 수 있어야 했다.

더구나 폭스와 베살리우스가 연구 과정에서 그림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림의 능력을 과신했던 것도 아니었다. 가령, 베살리우스는 그림이 실제 해부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직접 해부를 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갈레노스의 의견에 동감했다. 그러나 베살리우스는 고대 의학자들이 강조했던 해부가 대학 출신의 내과의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교수되거나 실행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그림이 텍스트보다 대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림으로 대신할 때 직접 해부할 때 경험하는 끔찍함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그림의 기능에 대해서는 과신하지 않았다. 베살리우스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이 그림만으로도 대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찰스 에티앵(Charles Estienne, c. 1505-1564)과는 달리 그림의 역할은 기하학에서의 그림의 유용성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살리우스가 보기에 해부학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어 실력 외에도 무엇보다 관련 해부학 및 의학 지식이 필요했다. 텍스트에 이미지가 더해질 때 직접 해부를 통해 개별적인 인체를 바라보는 경험을 넘어 보편적인 인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폭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폭스의 『식물의 역사』를 통해 그림을 처음 접하는 경우 해당 식물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폭스의 『식물의 역사』는 해당 식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폭스나 베살리우스에게 그림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한편, 쿠수카와는 폭스나 베살리우스가 활용한 삽화를 분석하면서 단지 자연을 그럴듯하게 “흉내(imitation)” 냈던 그림만으로는 16세기 식물학과 해부학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흔히 16세기 자연사나 해부학 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 이 시기에 직접 관찰과 경험을 통한 자연 탐구 경향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든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자연주의 회화 양식을 따랐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나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 같은 이들의 삽화를 그리는 경향의 초기 사례로 든다. 하지만 쿠수카와는 이들의 그림들이 이전 시기에 비해 실제 자연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그림들은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한 자연을 그저 모방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본다(looking)”는 것은 이전에 알려진 정보들을 짜맞추는 복잡한 활동인데, 이러한 작품들이 당시 익숙했던 전통적인 관념들을 담아낸 자연의 “위조물(counterfeit)”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벤델린 호크(Wendelin Hock, 1502-1531)의 해부학 서적이나 오토 브룬펠스(Otto Brunfels, 1488-1534)의 식물학 서적 속 삽화들 역시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든다. 이 작품들은 실체를 관찰하고 그리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작품을 보고 그리거나 삽화의 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린 것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쿠수카와는 자연을 흉내낸 그림들이 예상과는 달리 자연사나 해부학 분야의 삽화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전의 삽화들이 비록 조잡하고 때로는 유치하게 보이더라도 몇 가지 포인트를 살려 독자들로 하여금 해당 식물의 이름과 형태, 그리고 약효 등을 오래 기억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지만 그림만으로는 실제 식물을 간파하기 힘들었던 브룬펠스의 약초학 삽화는 오히려 고대 약초학의 지식을 복원하고 정리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었다.

쿠수카와는 이 시기 삽화 사용에 대한 견해를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식물학과 해부학 발전에 기여했던 폭스와 베살리우스의 삽화는 단순히 자연을 모방한 그림이 아니었고, 직접 경험과 다양한 논쟁 속에서 자연사 분야의 정리와 진정한 부활을 위해 창의적으로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가령,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에 관한 갈레노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중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함을 주장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한 논증(pictorial argument)” 방식을 고안했다.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가 당시 여건의 한계 등으로 동물 해부를 통해 인체 구조를 유추했던 점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 관념 속에서 동물 구조와 인체 구조의 차이를 과장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동물과 인체 구조의 차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독특한 그림 양식을 고안하였다. 최초로 삽화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간주되는 베렝가리오 다 카르피(Berengario da Carpi, 1460-1530)의 경우 동물과 인체 구조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베살리우스는 인체의 구조 속에 갈레노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묘사한 구조를 그려놓고 그럴 경우 얼마나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략은 우선적으로 베살리우스가 갈레노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에 무지한 채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다는 오해를 피하도록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그림 그 자체가 베살리우스의 논증이 옳음을 설득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림을 읽어내도록 책을 집필하면서 고대 학자들의 설명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효율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살리우스가 의도했던 것은 고전을 제대로 되살리는 것이었다. 흔히 16세기 해부학 연구가 고대의 권위를 반박하면서 발전했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쿠수카와에 따르면 고대의 권위와 16세기의 혁신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다. 가령, 갈레노스는 인체를 설명하면서 각 부위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겼고, 인체의 각 기관들은 그것의 기능을 잘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보았다. 베살리우스는 자신의 책에서 갈레노스의 설명과 어긋나는 점들을 드러내며 해부학의 혁신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갈레노스의 목적론적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그는 해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등을 목적론적 관점에서 설명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그가 해부학을 자연철학의 일부로 여겼던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베살리우스는 갈렌의 실수를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갈레노스의 의학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

쿠수카와의 책은 16세기 자연사와 해부학 분야의 발전을 단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직접 경험 및 관찰을 통해 자연주의적인 삽화가 증가했던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자연사 및 해부학 분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통과 실행을 둘러싼 다양한 지적 논쟁 속에서 그림 속에 숨겨진 전략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16세기 식물학과 해부학 분야에서 “본다”는 것과 “그린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